



전국 순회 양계강습회 개최 예정

—채란양계업의 계열화와 양계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5월 14일부터 전주, 광주, 제주, 부산, 대구, 서울의 6개지역)

본회는 양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채란양계의 계열화를 유도하고 방역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상품성을 높이고자 전국 순회 양계강습회를 개최한다.

본 강습회는 5월 14일(수요일)부터 6일동안 전북, 전남, 제주, 부산, 대구, 서울을 순회하며 실시한다.

후원은 미국사료곡물협회(USFGC)이며 수강대상은 양축가, 계란유통관계인, 유관업체, 관계공무원, 유관단체 관계자, 학계 및 연구계 기타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5월 14일(수)	13:00~17:00	전북	전주시 중앙신용협동조합회의실(3층)
5월 15일(목)	13:00~17:00	전남	광주시 전남지부회의실(3층)
5월 17일(토)	13:00~17:00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한일관(3층)
5월 19일(월)	13:00~17:00	부산시	동래구 온천예식장
5월 20일(화)	13:00~17:00	대구시	중구 명성예식장(3층)
5월 21일(수)	13:00~17:00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중회의실(2층)

2. 주제 및 강사

- 가. 채란양계업의 계열생산……Paul Ruszler 박사(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교수)
- 나. 계산물소비와 생산자의 역할…… 박영인 박사(미국 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회장)
- 다. 산란율을 저하시키는 질병대책……이영욱 박사(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
- 라. 생산비를 절감하는 양계관리……정선부박사·이규호박사(축산시험장 가금과)

*매월 개최되는 본회 각 분과위원회는 서울강습회(5월 21일) 개최후 같은 장소에서 개최 예정임.

부업양계 기준 상향 조정건의

—면세대상규모 조정도—

본회는 부업양계 기준설정 및 면세대상 양계규모 인상에 대해 농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최근 양계업의 단위당 소득이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농장의 대단위화가 불가피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복합영농을 주축으로 한 부업양계농가 육성이 절실히 요청되는데 따라 부업양계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닭 3천수 이하를 부업양계 농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1만수 이하로 상향 조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4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분과위원장에 한 순 부회장 선임—



(한 순
채란분과위원장)

4월 채란분과위원회가 4월 15일(화)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본회 황인옥전무는 협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닭고기 및 계란 소비촉진 홍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가 있었다.

협회의 홍보 활동에 반해 T·V 및 신문에서 유통 과정중의 비위생란에 대한 보도 및 계란의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협회가 추진중인 홍보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T·V 및 신문의 일방적인 보도에 대해, 양측가는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계란의 품질 향상 방안의 하나로써, 계란 오염의 근원인 난좌를 현재 플라스틱 난좌에서



△ 4월 채란분과위원회

1회용 종이난좌로 바꾸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난가동향은 행락철인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의 영향으로 인해 소비의 증가가 없어, 난가가 오를 기미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협회의 홍보활동에 힘입어 식생활 부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자들의 계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좀더 신성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분과위원회 임원 선출에서 채란분과위원회 위원장에 한 순씨, 부위원장에 최 준구씨가 선출되었다.

제1차 부화종계 분과위원회 개최

—분과위원장에 차상진 부회장 선출—



(차 상진
부화종계 분과위원장)

지난 4월 16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1차 부화종계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본회 황인옥전무의 협회 닭고기 및 계란 소비 촉진 홍보활동 보고가 있었다.

협회의 홍보활동에 비해 매스컴의 비위생란 보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고, 양계장 연수생 일본과견 문제로 대상자 추천 문제와 5월 중 지방 순회 강습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양계산물 소비홍보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부화·종계 분과위원회 위원장에 차상진 본회 부회장이 선출되었다.



양계산물 소비촉진 홍보 자문회 개최

본 협회가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양계산물 소비촉진 홍보에 대한 자문회가 지난 4월 23일 오후 3시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 되었다.

이날 참석자는 홍보협의회장 오봉국교수를 위시하여 매스컴과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각계 권위자 9명이 참석했다.

이날 자문회에서는 양계산물 소비홍보 촉진으로써 어떤 광고나 홍보가 바람직 하겠는가 하는 내용과 홍보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다.

육계가격하락대책 좌담회

육계가격의 불황으로 침체된 육계산업의 대응책을 마련코자 지난 4월 22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육계가격대책에 대한 좌담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장기불황의 원인은 생산자들의 무관심으로 상호 단합하지 못함에서 기인된 것이라 의견을 모으고 장차 계우회나 협회를 통한

정보교환 활성화를 이룩하여 불황의 타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생산지 가격과 소비가격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소비홍보를 계획성있게 실시하여 소비물량을 증대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한시바빠 장기불황의 해소를 위해 생산자의 구태의연한 인식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논의된 특집 좌담회 내용은 금월호에 (P.56 참조)자세히 보도된 바 참조하기 바란다.

4월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 4월 28일 본회 회의실에서—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4월 육계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육계가격은 3개월 이상 800원을 밑도는 시세로 kg당 730~780원으로 여전히 보험세로서 어린이날 연휴에는 약간 상승할 기미가 보이나 그 이후로 약세를 예상 86년도 내내 육계가격은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4월 육계분과위원회

초생추가격은 전기에는 강세였으나 시기적으로 입추를 피하는 시기가 되어 일시적으로 초생추가격이 하락되었으나 복물량 입추를 대비해 활성화 될것으로 봐 초생추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육계가격 전망은 참석한 생산자들의 말에 따르면 전국에 비축한 닭고기가 냉동창고에 많은 양이 비축되어 있어 쉽게 가격이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복물량의 병아리 출하가 의외로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분과위원들은 이제는 옛날의 한탕주의에 미련을 갖지 말고 년중 계획에 의한 입추를 실시하고 단합하여 스스로 부화장에서 병아리 출하를 조절하게끔 하고 원가절감에 노력하여 육계업 활성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계란유통 대책 좌담회 개최

최근 소비자들의 계란 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고, 협회의 양계산물 홍보활동에 반해 매스컴에서 계란의 위생문제에 대해 보도되고 있어 이의 대책에 대한 좌담회가 지난 24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생산자와 상인 그리고 위생관을 생산하고 있는 한냉·P센터를 대표해서 6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최근 매스컴의 비위생란 보도에 의해 생산업자가 큰 타격을 받고 있음과 한냉·P가 기존계란을 비하시켜 G·P처리란을 선전함으로써 유통계란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생란의 소비가 위축됨이 지적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냉·P센터 선전판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여, 한냉측에서는 제거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문제된 계란은 극히 일부이지만 위생적인 계란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를 위해, 생산자가 더욱더 위생적인 계란 생산에 관심을 가져줄 것과 현재 계란오염의 근원인 플라스틱난좌를 1회용 종이난좌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부산, 닭고기·달걀 요리 강습회 및 시식회 개최

지난 4월 25일 오후 2시 부산관광호텔 2층에서 닭고기 요리 강습회, 전시회 및 시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강습회에는 부산시 산업국장위 치사에 이어 대한양계협회 부산·경남 지부장의 축사, 한

국식생활 개발연구회 왕준련회장의 단백질원으로 써 닭고기의 우수성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어 요리강습회가 끝나고 시식회에 들어갔다.

이날 강습회에는 506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대구, 닭고기·달걀 요리 강습회 및 시식회 개최



본회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인 홍보사업의 일환인 닭고기요리 강습회가 지난 4월 29일 오후 2시 대구동아쇼핑센터 11층 연회실에서 개최 되었다.

이날 강습회에서는 대구시장을 대신해 이희태 대구시 산업국장위 치사가 있었고, 한국 식생활 개발연구회 왕준련회장의 닭고기와 계란의 영양적 가치에 대한 강의에 이어 강습회가 실시되었다.

이날 강습회에서는 대구지역 일반주부와 여성단체 각 대학 여학생이 500여명 참석해 닭고기 요리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 주었다.

시식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호평이 있었는데, 이날 강습회로 닭고기와 계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

육계업자 단합 및 강습회 실시 —본회 전북지부, 4월 23일—

대한양계협회 전북지부(지부장: 박옥룡)에서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1시 전주 코아호텔 2층 무

궁화실에서 전북지역 육계업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계업자 단합 및 강습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강의에는 효율적인 육계사양관리 및 전망에 대해서 제일사료 김 영옥상무(본지 편집위원)가 강의했다.

이어서 전남대 농대 최정옥 박사의 육계 주요질병 예방대책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업무보고 통신문 발간

—양계협회 전남지부—

본회 전남지부(지부장: 안명수)는 최근 협회지부 회무를 알리는 협회통신지를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이번 통신지에는 최근 만연되고 있는 IB(닭 전염성 기관지염)에 대한 예방 및 퇴치방법 등을 광범위하게 소개했다.

특히 본회 전남지부는 그동안 양계인 권익 증대와 양계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전석홍 전남 지사를 예방하는 등 정부의 양계업 지원대책 등을 건의한 결과 도로부터 양계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4월 편집위원회 개최



(정 선부)
편집위원장

본회 4월 편집위원회(위원장 정선부박사)가 지난 4월 17일 오후 5시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회의에 앞서 편집위원장 선출이 있었는데 정선부박사를(축산시험장 가금과장, 한국가금학회 상무이사)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간양계 4월호(통권 198호) 검토와 5월호 편집계획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육계 불황 대책 좌담회와 위생

란 유통 대책 좌담회, 계절별 사양관리 대책 등의 편집을 중점 논의했다.

용인분회 사무실 확장이전

본회 용인분회(분회장 이예웅)는 본회의 업무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3일 사무실을 확장이전했다.

주소: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 54번지

전화: (0331) 8-5232

본회 편집 신규직원 임용

—김용화씨 신규채용—



(김 용화)

본회는 편집국의 결원된 인원을 보충기 위해 김용화(충북대 축산과졸)씨를 지난 4월 21일부로 신규채용했다.

한편 지난 4월 20일부로 편집국 민병호씨가 의원면직되었다.

고창양계, G·P센터 현황 인터뷰

지난 4월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미국 다이어몬드 시스템사 제임스 닐드사장과 축산관계정기간행물 기자들과의 회견이 있었다.

G·P기종인 계란세척기와 케이지 자동급이 시설의 한국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일시 내한 했다는 제임스 닐드사장은 한국의 G·P센터의 발전 전망을 매우 희망적으로 예견하면서, 위생란의 유통으로 소비증가에 한층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G·P센터 수준과 계란의 유통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장차 한국도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있어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이시설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지부 대정부면담위원회 구성 -지역양계산업 발전 유도 위해-



(안 명수
전남지부 지부장)

전남지부(지부장 안명수)는 지역 양계인 고충해결을 위한 대정부면담위원회를 구성 전남지역 양계산물 유통구조 개선책에 대한 유관기관을 방문 면담했다.

10여명으로 구성된 면담위원회는 안홍식 전남도 식산국장(3.20), 전석홍 전남도지사(3.27), 축협중앙회 박순용 전남도지부장(4.4)을 각각 면담 하였다.

면담에서는 △계란저온 수매창고(100평용 2개소), 육계수매비축 냉동창고설립 △닭고기, 계란 수매건의(비수요기때) △닭고기 식육점 공용 판매 의무제 △계란학교급식, 지방제빵공장 생산자 직거래 소비처 알선 △전남 계란 공판장 설치 △양계산물 소비홍보 매스컴 정기 간담회 요청 △전남 양계인 신용 담보 대출(축협도지부) △양계인 세율 인하 감면혜택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전남도 및 축협도지부에서는

1. 장기적으로(87년부터~88년중)축협산하에 계란공판장과 G·P센터, 육계냉동비축창고는 본 지부와 세부계획을 세워서 광주축협과 연계시켜 설립기로 약속했으며, 시급히 당면한 계란저온창고는 100평용 1개소만 광주축협과 연계시켜 중앙재원으로 86년도 중 완공시켜 주기로

2. 닭고기, 계란 수매는 생산가이하시(계란 40원이하, 육계 700원이하) 전량수매기로(전남지역)

3. 닭고기 소비촉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도청, 시청, 보사국에서 강력 관여하고 도계장, 협회, 기업조합, 축협도지부 공동협의하에 점진적으로 확대판매기로

4. 계란 학교급식은 문교부와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남도지사, 축협도지부에서 농수산부, 문교부에 건의하고 양계협회 중앙회에서도 문교부에 절충하여 급식유도키로 했으며, 지방 제빵공장 해태, 사니, 영일식품(전남제빵공장) 등이 하루에 950,000개를 타도에서 반입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조치와 적극 행정당국에서 전남 제과협회와 절충하여 전남 지역의 생산물을 공급유도키로

5. 양계산물(계란, 닭고기)을 지방 매스컴을 통해 촉진키 위해 축협도지부에서 주도하고 수시 홍보자료를 협회에서 제공키로 했으며 수시 간담회도 행정국과 공동추진키로

6. 전남 양계인에 대한 신용담보대출은 축협도지부, 은행, 광주축협은행에서 300~500만원 범위내에서 대출해 주기로

7. 전남도지부 안명수지부장을 전석홍 전남도지사(지역경제협의회회장)의 위촉에 따라 축산인으로는 유일하게 전남경제인들로 구성된 지역경제협의의 위원으로 특별위촉.

8. 전남지역에 축산물 요리식품(87년도중)쇠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로 만든 주요식품에 대한 전시회장(상설)을 준비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냈다.

제 3 차 일본 양계기술연수생 선발 -양계장 및 난가공 공장에 10명-

제3차 일본양계기술 연수생과전 면접에서 10명이 선발되었다.

올해로 3번째 파견되는 일본양계 연수생은 일본 대단위 체란양계장의 사육기술 습득과 사양관리 집란센터(G·P시설), 계란가공, 계분의 활용등 일본의 선진 양계기술을 1년에 걸쳐 登富士 割卵工場과, 農事組合法人 清明養鶏의 각 농장과 관련 사업장을 돌면서 각종 기술을 익히게 된다.

연수생선발은 축산관련학과가 있는 각대학(전문대 이상)에서 추천받아 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선

임하였으며 연수생의 왕복여비, 체제비는 초청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양계기술 연수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덕철, 김도형, 김우호, 심재국, 김정완, 장경만, 김재찬, 엄창수, 김철호, 하성용 이상 10명

전주 닭고기와 달걀요리 강습회

4월 11일(금)전주시 전라북도여성회관에서 닭고기와 달걀요리 강습 및 전시·시식회를 한국식생활개발연구원(회장 왕준련)주최, 본회 후원으로 개최하였다.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일반주부, 영양사, 조리사, 단체급식담당자, 소비자단체회원, 본회회원 등 약 307명이 참가했다.

전시된 닭고기와 달걀요리는 54종으로써 다양한 종류가 소개되었다.

박옥룡지부장(본회 전북도지부)의 인사말과 전북도지사를 대신해 김용신 식산국장은 격려사가 있었다.

왕준련회장의 닭고기와 달걀의 영양 강의에 이어 강습회가 진행 되었으며 강습회후에 전시된 54종의 요리를 참가자들이 시식하는 순으로 행사를 마쳤다.

본회 규정집 발간

양계협회 각종 규정을 한데 모은 규정집을 지난 4월에 발간해 각도지부 및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본 규정집에는 본회정관을 위시하여 직제, 인사, 복무, 예산회계, 급여, 여비, 회비 및 제수입금 부과징수, 회원자격 및 관리, 분과 및 전문위원회, 대의원선출, 지부 및 분회, 닭경제능력검정, 포상, 알선사업, 초생추감별사자자격시험검정, 전결규정 등 제규정과 해외여행 추천기준과 닭검정 요령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각국의 닭고기요리 전시 및 강습회 개최

—서울, 5월 7일 홍보사업 일환으로—

5월 7일(수)서울프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각국의 닭고기요리 강습회 및 전시, 시식회를 가졌다.

86·88국제대회를 대비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 동남아, 중국, 일본, 구미식 및 Fast Food(간이식)의 100여종이 전시 되었다.

유태종교수(고려대)의 닭고기 영양강의와 왕준련회장의 강습에 이어서 참가자 300여명의 시식회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요리법과 외국의 색다른 요리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평소에는 먹어보지 못한 맛을 느낀다며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적정 생산, 적정 출하로 발전하는 양계산업

○버리고 좁기보다 안버리는 문화국민

— 대한양계협회 정화추진위원회 —